

우리 농경지 토양관리 기술, 우즈베크에 전파

농진청, 세계은행 주관 농업현대화 지식공유행사 참석 국립농업과학원서 개발한 시스템 '휴토람' 높이 평가 행사에서 논의된 결과 기반 향후 협력사업 구체화하기로

농촌진흥청(김경규 청장)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최한 '우즈베크 농업현대화를 위한 지식공유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농촌진흥사업 체계와 디지털 토양관리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과 세계은행이 지난 5월에 체결한 농업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세계은행 및 우즈베크 농림부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 지식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국의 농경지 토양관리 기술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행사 개최가 구체화됐다. 당초 세계은행과 우즈베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로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 세계은행 관계자 및 우즈베크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에서 개발한 토

양환경정보시스템인 '휴토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작물재배 및 토양관리에 필수적인 토양분석기술과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연계된 기술보급 체계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세계은행 우즈베크 농업현대화 프로젝트 담당자는 우즈베크의 농업개발 계획 및 토양관리 상황을 설명했다. 향후 농촌진흥청의 토양관리기술 전수와 전문가 지원 등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은행과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권윤택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반세기 동안 축적된 한국의 농업연구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즈베크 농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산 글라디올러스 생육 상황 조사 21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국산 '글라디올러스'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붓꽃과에 속하는 글라디올러스는 꽃이 크고 화려해 경조사용 화환이나 결혼식, 교회 장식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더위에 강하고 꽃이 많이 달리는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연구해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조달청, 6월 국민 혁신수요 우수 아이디어 선정·발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6월 혁신장터(ppi.g2b.go.kr)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혁신장터에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6월에는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48건을 접수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방과 후 아이들 동선 체크 시스템 개발, 마찰방지포 개선용 통한 함정 계류색 절단 방지, 제로페이 결제 편의성 향상,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 목걸이, 잠깐주차지역 설정 등 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우수 혁신수요는 제품과 기술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혁신제품 지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혁신조달정책에 반영된다. 매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제는 혁신제품 발굴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안전한 농촌클린사업장으로 놀러오세요'

전북농기원, 안전·위생관리 실천 농촌체험농장 도내 26곳 소개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에 도내 26개소가 선정되었다.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안전과 위생관리를 실천하는 농촌관광사업장을 선정해 여름 휴가철 안심 여행지를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현재 돼 있던 농촌으로의 여행을 유도하여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고객 간 교차 최소화, 소모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응급처치교육 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농촌교육·체험 농가, 농가맛집이다.

도내 선정된 체험농가는 군산 기쁨이네 다육농원, 익산 우리들의정원, 정읍 알로에사랑, 무주 덕유원프, 고창 헛드림, 부안 빗남매 등 23개소, 외식분야는 남원 지리산나물밭, 김제 삼의향기, 고창 베리팜 3개소이다.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열체크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으로 문의 가능하다. 휴가철 농촌여행 활성화에 따른 안전한 클린사업장을 유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촌여행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예방수칙을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영민 기자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은 긴장과 활동제한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 안전한 농촌 클린사업장으로 찾아와 자연도 느끼며, 즐거운 체험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답답했던 마음을 농촌에서 풀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

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 분야 등 14명 선발... 10월 중 임용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분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글로벌 투자 인력 확충을 위해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운용전략, 해외투자, 대체투자 및 수탁자 책임, 리스크 관리, 기금법무 등 기금운용 업무 전반이며, 채용 절차를 거쳐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분부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운용직 채용 공개 모집을 연 2~3회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을 거쳐 기금운용에 적합한 인력을 최종 선발한다. 지원서 접수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오후 6시 마감)까지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0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각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nps.or.kr>)와 공단 기금운용분부 홈페이지(<http://fund.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더욱 든든히 운용할 수 있도록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인재들이 적극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는 지난 20일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종합 전기 안전점검을 벌였다.

창의적 인재 육성 3D 프린팅 교육 '인기 있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전주유이중에서 3D 프린터 전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0일 전주유이중학교에서 '3D프린터 지원사업' 기기전달식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프린터를 지원하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 비전 프로그램으로 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신청한 중·고등학교 중 매년 10개교를 선정해 3D프린터를 각 2대씩 지원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하 부장, (주)에이케이 박준규 대표, 전주유이중학교 임국원 교장, 정진욱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는 3D프린터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 기기 설치 및 사용 방법 등 프린터 기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진욱 교사는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시제품 제작을 하는



2020 '3D프린터 지원사업' 기기 전달식

지난 20일 전주유이중학교에서 열린 '3D프린터 지원사업' 기기전달식.

과정에 3D프린터의 레벨링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지원했다"며 "전북은행에서 3D프린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시제품 케이스 제작 및 액세서리와 같은 모델링을 출력하고 SW교육 체험 교실을 통해 3D프린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구 이사장은 "전북은행은 3D프린터 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12월에 3D

프린터 모델링 경진대회를 진행해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이사장 표창, 전북은행장 표창, 전라북도교육감 표창,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표창 및 총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무더운 여름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위해

한전 김제지사, 전통시장 전력설비 합동 안전점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지사장 라영균)는 지난 20일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종합 전기 안전점검을 벌였다.

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은 한전 김제지사와 김제 전통시장 상인협회가 체결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월 20일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향상사업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장 주변 환경정화사업 등 10가지다.

협약에 따라 김제지사는 장마 후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마쳤다.

앞서 김제지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및 마스크 지원, 각종 물품 구매,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라영균 김제지사는 "올 하반기에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아리랑TV와 해외 홍보 논의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7월 21일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를 방문, 이승열 사장과 함께 새만금의 해외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새만금을 소개하고 해외에 새만금을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국제공항,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곧 들어설 새만금 지역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우수한 투자처"라고 새만금을 소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새만금에 RE100단지 등을 계획하는 등 전 세계적 추세에도 발맞추고 있다"라며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통해 해외 청소년들에게도 새만금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리랑TV 이승열 사장은 "아리랑TV는 국제도시로 변해가는 새만금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협력하겠다"며 "새만금은 비대면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지역으로 특히 영상산업이 자리 잡기에 최적의 장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리랑TV는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협력, 전 세계 100여국으로 송출되는 경제 프로그램인 '머니 몬스터'에서 새만금을 소개한 바 있다.

프로그램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인터뷰를 담아 해외 잠재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다.

김현숙 청장은 아리랑TV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성 기자

하림 정음공장, 복면에 토종닭 500마리 기탁

정음시 북면에 소재한 (주)하림(대표 박길연)이 최근 토종닭 500마리를 북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주)하림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더위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건강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토종닭 기탁을 결정했다.

이날 기탁된 토종닭은 무더위로 힘들어 하는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하림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보양식을 드시고 원기 충진해 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